

중앙SUNDAY·아산정책연구원 공동기획 한국문화대탐사 ㉔ 선비(上)

권력 앞에서도 대놓고 바른말…왕도 걸끄러워한 선비

율곡 이이는 썼다.“임금이 선비를 미워할 만하다. 임금을 간할 때는 난처한 일로 책망하고, 임금이 붙들어도 머무르지 않고, 은총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의 뜻만 실천하려 한다. 참으로 임금이 선비들을 쓰기 어려운데 선비 중에는 과격한 자도 있고 말만 하는 자도 있으며 명예를 좋아하는 자들도 끼어 있으니 어찌 임금이 싫어할 바가 아니겠는가.”(『율곡전서 일』 권6) 선비의 대표이며 사림(士林)의 영수인 율곡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선비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가.

안성규 기자, 이승률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askme@joongang.co.kr
--

1649년 4월 29일, 이른 새벽, 왕세자(후에 효종)는 기상했다. 간단한 아침 식사 뒤 와병 중인 부왕 인조에 문안드렸다. 오전 6시, 상참(왕과 신하의 국정 논의)에 이어 아침 서연(書筵·왕세자에게 경서를 강론)을 시작했다. 주제는 『중용장구(中庸章句)』. 인조의 병세가 위급해 조강은 다음 날 중단됐다. 5월 8일 왕이 승하하고 6개월 뒤 10월 23일 조강은 재개됐다. 이어 왕에 대한 경연(經筵)이었다. 『중용장구』를 다시 시작했다. 왕이 됐다고 봐주지 않았다. (김종수의 『효종통고 일기』를 통해 본 경연)

경연 장면은 효종 기록이 없어 선조를 통해 유추해 본다. 1567년 음력 11월 초5일, 즉 위 낙 폐인 이남 16세 선조는 경연을 한다. 선왕 명종의 비 인순황후와 대신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선조는 먼저 복습했다. 이어 강학관이 『대학』 ‘정심장(正心章)’의 ‘몸을 닦음 이 마음을 바로함에 있다함은…’을 원문으로 두 번 읽고 공부를 한 뒤 읽었다. 임금은 원문 한 번, 풀이 한 번을 읽었다. 다시 강학관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의 차이” ‘할(察·살핀다)이라는 한 글자가 병을 다스리는 약’을 강론했다. (유희준의 『미암집(眉巖集)』)

갑자가 왕세자가 된 효종은 세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조강은 물론 석강, 아대, 소대(대신을 불러 강의를 들음)까지 했다. 세자의 아침 서연은 통정각 오전 9시, 하절기 오전 6시에 시작됐다. 왕세자 시절·즉위 한 달 인 33개월 중 4개월간 서연이 없었는데 병 때문이었다. 대신들은 틈을 주지 않고 공부시켰다. 효종의 왕세자(현종)도 한 글자가 병을 다스리는 약을 강론했다. (유희준의 『미암집(眉巖集)』)



갑자가 왕세자가 된 효종은 세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조강은 물론 석강, 아대, 소대(대신을 불러 강의의 들음)까지 했다. 세자의 아침 서연은 통정각 오전 9시, 하절기 오전 6시에 시작됐다. 왕세자 시절·즉위 한 달 인 33개월 중 4개월간 서연이 없었는데 병 때문이었다. 대신들은 틈을 주지 않고 공부시켰다. 효종의 왕세자(현종)도 한 글자가 병을 다스리는 약을 강론했다. (유희준의 『미암집(眉巖集)』)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선비의 제약을 받았다. 정옥자 명예교수는 “조선 성리학은 신권을 강화하고 여론을 중시하고 왕에게 철인(哲人)이 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동양사학과 박훈 교수는 논문에서 사대부적 정치문화의 특징으로 ▶군주와 함께 정치함 ▶신하는 의(義)를 위해 군주를 보좌함 등을 꼽았다.

그래서 임금도 선비의 뿌리인 공자에게 머리를 숙였다. 태종이 성균관에서 알성(謁講·성인 공자를 배울 때 왕은 절을 해야 했다. 태종은 “왕인 내가 왜 공자에게 절을 해야 하느냐”고 애조판자에게 물었다. 판서는 “공자는 만세백왕자사(萬歲百王之師)이므로 절해야 한다”고 했다. 왕은 절했다.(<태종실록> 권28, 14년, 7월 임오조)

“왕은 으뜸 선비이며 나라를 함께 다스린다”는 의식은 조선 선비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존왕(尊王)은 해도 절대 복종은 안 한다. 그래서 경연과 상소에서 추상같이 말할 수 있다. 경연 내용을 기록한 기대승의 『논사록』을 보자. 명종 19년 2월 13일 기대승은 “언로는 국가에서 매우 중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연로가 크게 열려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선조 즉위년(1567년) 10월 29일엔 “임금은 이익을 독점하지 말고 백성과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남명 조식은 명종 10년 단상 협감을 시작하면서 을묘사족소를 읊었다. “전하의 국사는 그릇에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으며 하늘의 뜻은 떠났고 민심도 어난되었습니이다. 큰 나무가 백년 동안 벌레에게 갇혀 허약해진 애 말았는데 화오리와 사나운 비가 언제 막칠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고 성도한다.

지난 1월 23일 경북 의성에서 만난 김용수 씨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학봉 김성일의 일화를 소개했다. 학봉이 “(임금의) 정실의 고명애 요순이 될 수 있지만 정실 삼강계를 사 바른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는 것이다. 대놓고 말하는 선비들이 조선 조정엔 흔했다. 오늘날 국무회의 석상에선 수석과 장관들이 보고하고 ‘하명’을 받아 적기에 바쁜 모습이다.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는’ 수석과 국무위원은 찾아볼 수 없더니 선비정신의 퇴보인가.

조선 선비는 신하이자 학자였다. 신하로선 왕에 복종했지만 학자로서는 유학의 거장이자 스승이요, 오늘날 국무회의 석상에선 수석과 장관들이 보고하고 ‘하명’을 받아 적기에 바쁜 모습이다.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는’ 수석과 국무위원은 찾아볼 수 없더니 선비정신의 퇴보인가.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중 24화가 거절이다. 남명도 13번 모두 거절했다. 성리학 체계에서 선비는 왕의 협조자이자 비판자였다. 선비의 정통성은 협조·비판의 양면성을 가진 인물로 이어졌다. 다시 문묘로 돌아가 보자. 종사관 인물은 선비정신의 구현자다. 가장 먼저 종사관 정몽주는 조선 개국에 반대했다. 정여창·김립은 연산군 때 사사(賜死)됐고 조광조는 중종의 사약을 받았다. 이언적은 명종 때 규양지에서 죽었다.

한국학공대 최보영 교수는 1983년 조선시대 종묘에 종사관 왕통(王統) 중심 83명과 문묘·서원에 종사관 도통(道統) 중심 75명을 비교했다. 종묘에는 왕가에 공이 있는 사람, 문묘·서원에 유학을 펼친 인물을 모신다. 태조~중종 전기 153년간 왕통·도통이 중첩되는 인물은 없었다. 훈구 대신에 의해 선비들이 죽어가던 시절이었다. 인종~숙종 176년간 둘이 일치하는 선비가 나왔다. 갑인·국·이언적·이항·이이·김집·김상헌·송시열·박세채·김만기 9명이다. 선비의 증흥기다.

을 생각했다. 연산이 예다. 선비는 임금이 불러도 사양할 수 있었다. 학자이기 때문이다. 퇴계가 올린 소·자·장·계 44초 중 36초가 임정치가 출현했다.

성균관대 이장희 명예교수는 ‘조선시대 선비상’에서 “선비는 덕치주의 실현이 최상의 목표이며 인의예지충신약을 갖추어 한 국·이언적·이항·이이·김집·김상헌·송시열·박세채·김만기 9명이다. 선비의 증흥기다. 을 생각했다. 연산이 예다. 선비는 임금이 불러도 사양할 수 있었다. 학자이기 때문이다. 퇴계가 올린 소·자·장·계 44초 중 36초가 임정치가 출현했다.

보통 선비의 이미지는 인조~숙종 기간에 이름을 떨치거나 도의 맥을 이어받은 선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선비 연구학자 10인에게 물었더니

교수·언론인·NGO 단체장…선비정신 필요한 ‘현대판 선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이자 스승(師), 즉 군사다. 왕은 선비의 주군이자 스승이다. 으뜸 선비다. 선비 없인 왕 없고, 왕이 없으면 선비도 의미가 없다. 왕과 선비는 상호 의존 관계다. 고려대 윤사문 명예교수는 ‘16세기 초 선비정신의 형성에 대해’에서 『조선경국전』은 정치체제로 군주제를 규정하지만 운용상 군주의 독선과 횡포 및 독재를 방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권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 임금·문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은 임금(君)